

교육현장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 집중기간 운영

학교계약·운동부 운영 등
도교육청, 내달 30일까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1월 30일까지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패·공익침해 행위 사례를 안내하고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청렴한 전북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신고분야는 △학교계약(공사, 물품, 용역 등) △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 급식 관리 △현장학습(수학여행, 수련

회) 관리 △방과후 학교 운영 △교직원 복무 등 교육현장의 부패·공익침해 행위다. 신고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www.je.gkr)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dkan.g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및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본관 및 창조나래(별관) 1층에서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청렴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청렴정책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퀴즈 이벤트는 교

직원·학생·학부모 등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도교육청 블로그, SNS 및 교육기관(학교) 홈페이지 '청렴퀴즈 이벤트' 안내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퀴즈 정답자 중 300명을 추첨해 온라인 문화상품권(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11월 4일 도교육청 블로그를 통해 공개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청렴 문화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모든 공직자의 본연의 의무"라면서 "이번 집중신고기간 및 퀴즈 이벤트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환되고,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통한 부정부패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17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본관 및 창조나래(별관) 1층에서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미래교육'의 다양한 시각 확인

도교육청, '너도나도 공모전'
사진·PPT·동시 등 3개 분야
내달 4일까지 작품 신청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2 너도나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북교육의 새로운 교육비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육주체가 바라는 미래교육의 다양한 시각을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사진(교직원), PPT(중·고등학생), 동시(초등학

생) 등 총 3개 분야로, 작품마다 전북교육이 추구하는 미래교육의 의미와 지향점이 반영돼야 한다. 응모기간은 오는 11월 4일까지로, 전북지역 학생 및 교직원(교육공무직 포함)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방법은 전북교육소식 누리집(http://news.je.gkr)에서 공모전을 클릭, 신청하기 게시판에 출품자 인적사항과 작품 제목·작품 소개 등을 작성한 뒤 작품을 첨부하면 된다. 동시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신해 담임교사나 학부모가 대리 접수할 수 있다. 단, 1인당 1작품만 응모 가능하며, 2작품 이상 등록시에는 먼

지 등록한 1작품만 심사 대상이 된다. 시상은 각 분야별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5점이며 장려상은 사진 10점, PPT와 동시는 각각 15점씩 총 64점을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수상자는 11월 16일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교육감 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수상자는 전북교육소식 누리집과 블로그에 게재되고, 도교육청 홍보 자료로도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공모전 누리집이나, 공모전 담당자(063-239-9173)에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2025년 도입 고교학점제 정책 안내

도교육청, 내달 22일까지 찾아가는 고교 교육과정 학부모설명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4일 익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학부모들에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화와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정책을 자세히 안내했다. 한편 11월 22일까지 도내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차례로 열리는 학부모 설명회에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둔 학부모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각 지원청별 설명회 일정과 장소는 도교육청 누리집(www.je.g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설명회에 참여하려면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



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주현화 학교교육과장은 "전북교육청은 학생이 꿈꾸는 진로에 따라 학업설계를 하고 이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진로를 함께 진로를 설계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서정섭 혼불연구가 초청
전북대 평생교육원 인문학 특강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양병호)은 21일 오후 3시 서정섭 혼불연구가(사진)를 초청, 인문학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대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평생교육원 인문학 특강은 매달 주제별로 명사들의 삶이 투영된 이야기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채워주고 있다. 올해 네 번째로 마련된 이번 인문학 특강에는 최명희 학술상을 수상한 서정섭 전 교수가 전라도 민속 문화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차치게 묘사한 최명희의 '혼불'과 배재지, 중요 사건과 의미, 최명희가 매체정신과 언어관 등을 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인문학 특강은 전북 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ec.jnu.ac.kr)와 전화(063-288-0022)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도내 초·중·고 영어 수업나눔, 학교 밖으로 확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내달 30일까지 9개 초·중·고서

도내 초·중·고 영어 수업나눔이 3년 만에 학교 밖으로 확대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로 교내에서 실시하던 영어 수업나눔을 18일부터 인근 지역 교사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어 수업나눔은 태슬·심화연수 등 영어지구 연수를 이수한 9명의 교사가 다른 학교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의 실용 외국어 능력을 길러주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수업은 11월 30일까지 전주와 익산,

남원 고창 지역 등 9개 초·중·고에서 실시한다. 참관을 원하는 교사는 수업 학교와 일정 관련 공문을 참조해 사진 신청하면 된다. 정혜영 교육혁신과장은 "코로나19로 다소 위축했던 도내 영어수업이 교실 문을 연 교사들의 수업나눔으로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후보 시절 약속한 교육정상화 5대 요구안 모르쇠로 일관"

전교조 전북 "서 교육감 규탄"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즉시 면담에 응하라" 전교조 전북지부는 17일 도교육청 2층 브리핑룸에서 "후보 시절 약속한 교육정상화 5대 요구안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불통교육감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의 발문을 열었다. 특히 이들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취임하면서 독선과 불통의 전북교육을 소통과 협치의 전북교육으로 바꿔 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유독 전교조 전북지부와 공식 면담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을 관할한다. 실행 주체는 교육 현장 최전선의 교사들"이라면서 "전교조 전북지부는 규모나 역사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원노조다. 제일 먼저 소통하고 협치해야 할 파트너"라고 밝혔다. 전북지부는 이 자리에서 "여러 관계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감 만남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 12일 국정감사가 열린 전남대에서 우연히 교육감을 마주친 자리에서 왜 만남이 이뤄지지 않느냐고 물자, 돌아온 대답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왜 만나느냐"고 답했다는 것. 이어 이들은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4월 전교조 총성장을 방문해 농



전교조 전북지부는 17일 도교육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시절 약속한 교육정상화 5대 요구안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불통교육감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구를 새로운 안건으로 담아 협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미 당시 즉시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한 약속만큼은 세부 계획만 내놓으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지부는 "전교조의 끈질긴 투쟁으로 보결전담인력이 확보됐고, 또 돌봄 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면서 "교육감이 약속만 지키면 뭍에도 대화를 피하고 있는 모습에 참으로 안타깝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LINC3.0사업단이 공동 주최하는 전력변환기술 Open Campus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가 지난 14일 공학관 204호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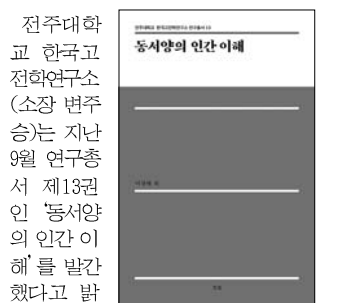
전주대, 전력변환기술 오픈 캠퍼스 릴레이 세미나

지능형 전력망 부품·시스템산업 기반 구축 등 발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상진)과 LINC3.0사업단(단장 주승)이 공동 주최하는 전력변환기술 Open Campus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가 지난 14일 공학관 204호에서 열렸다. 이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는 한국전기연구원 김태민 박사와 권민호 박사가 각각 지능형 전력망 부품 및 시스템산업 기반구축, 접합형 HVDC(고전압직류) MMC 서브모듈 시험장치, DC 마이크로그리드 제어분석과 전력변환장치 제어기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에는 전북지역에너지플러스 인제대학교 전력변환기술 부문에 참여한 5개 기업체 임직원 8명을 비롯해 전문가 및 대학원생 등 25명과, 온라인 참여자 10여 명을 포함해 총 35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한편 세미나에 이어 전력변환 분야에서 산학협력 연구활동 경험이 많은 박진배 총장과 기업체 임직원의 간담회를 갖고 전력변환 관련 산학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전북 지역에서 전력전자, 전력변환 관련 생산기술 보유자를 찾기 어려움을 뵈면

아니라 이전에는 자동차 전장부품 개발과 관련해 대학과 연계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지역에너지플러스 인제대학교 전력전자연구실 김은수 교수를 통해 기업 활동에 절실히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업체 우선 취업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에게 매우 유익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또 "김은수 교수 연구팀과 지속적인 기술교류 및 지원과 자문을 통해 우리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전문인력 공급 등의 산학협력 이 이어질지 바라며, 대학원 졸업이 전이라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조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배 총장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LINC3.0사업단을 통해 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산학협력으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번 오픈세미나처럼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기업의 성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주대학교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동서양의 인간 이해' 발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지난 9월 연구총서 제13권인 '동서양의 인간 이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동서양의 인간 이해'는 제목 그대로 동서양의 인간 이해라는 포괄적 주제로 동서양의 인간에 대한 철학적 시선과 시대와 여성 그리고 감옥으로부터 도덕까지의 정치 문화사적인 다양한 시각들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특히 인간의 존재 방식을 사유의 논리에 따라 설명하고 규정하기보다는 지금, 여기 인간의 존재 상태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 총서를 기획했다. 이를 계기로 인간 이해를 위한 동서 인문학의 담론장을 열었다. 문학, 역사 그리고 철학이란 분야에 한 한정된 논의의 장이라는 한계를 실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의 인간 이해 방식과 서양의 인간 이해 방식을 하나의 장에서 발견하고 비교 시유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은성 기자